

■ 2023년도 창작의과정 #공연예술_연극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창작의과정 #공연예술_연극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13:00~17:00
- 회의장소 : 서울 아트리움 호텔(종로) 컨퍼런스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강용복, 남윤일, 손신형, 이기쁨, 이승현, 이우천, 최원석

창작의과정(공연예술) 연극분야는 이전에 있던 창작실험활동지원과 사전제작활동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단계별 창작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올해의신작과 같은 지원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소재 발굴과 기획 및 제작 준비 활동을 지원하여 창작자 중심의 세분화 되고 안정적인 작품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전연구 유형과 사전제작 유형으로 나누어 신청이 진행되었는데, 사전연구 유형에는 67건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사전제작 유형에는 154건의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전체 신청 221건 사업 중, 타 기관 신청서 제출의 사유로 인해 행정결격 처리된 사전연구 1건과 중복 신청으로 인한 사전제작 1건을 제외하고, 152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공고된 바와 같이 두 유형은 기준에 다소 차이를 두고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연구 유형의 경우는 활동목적의 타당성(30%)과 활동계획의 충실성(40%),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30%)를 심의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사전제작 유형의 경우는 기획의 창의성(40%), 계획의 구체성(40%) 그리고 예산계획의 적정성(20%)을 기준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본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 7명의 심의위원은 공개된 기준에 따라 신청된 사업을 사전 검토한 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 심의에 앞서 심의위원들은 나름의 원칙을 공유하였습니다. 첫째, 기획이 신선하고 창의적인지 고민하였습니다. 둘째, 계획 및 결과에 있어 구체적인 방향성이 있는지 따졌습니다. 셋째,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배정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이미 공지된 사업의 심의 기준을 따르면서도 사업의 목적에 맞는 대상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일회성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향후 우수한 작품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신청사업을 고민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트렌드를 반영하듯 신청한 사업들의 면면은 다양했습니다. 로봇과 같은 소재를 통해 SF적인 상상력을 가미한 작품, 현대사의 굴곡 속에 살아온 개인의 삶을 조망하고자 하는 작품, 성별을 넘어서 소수자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작품 등 다채로운 소재와 주제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또한,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경향을 보였는데, 판소리나 재즈 등 음악 장르와의 결합을 시도하거나 영상이나 게임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

는 방식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들은 어떤 사업의 작품이 동시대적인 감각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애썼습니다. 나아가 완성된 하나의 작품이라는 결과물에 도달했을 때 연극이라는 장르의 미학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품은 사업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오랜 토론 끝에 사전연구 유형 20건과 사전제작 유형 18건을 선정 사업으로 뽑았습니다. 구체적인 작품을 제작하기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이라 그런지 몇몇 신청사업은 구체적인 방향성을 판단하기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에 비해 선정된 사업들은 참신한 기획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이 결국 좋은 공연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지원예산이 한정적이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전연구 유형은 정액 지원이라 문제가 없었지만, 사전제작 유형의 경우는 좋은 사업을 고르는 과정에서 18건을 채택하면서 신청한 예산을 모두 책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누군가에는 다소 아쉬운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낸 만큼 다시 무대에서 관객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창작의과정 #공연예술_창작뮤지컬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창작의과정 #공연예술_창작뮤지컬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14:00~18:00
- 회의장소 : 서울 아트리움 호텔(종로) 컨퍼런스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종현, 박정아, 박찬영, 배새암, 유희정, 최종윤, 현어진

2023년도 창작의과정 지원사업은 소재 발굴, 기획 및 제작 준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작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작뮤지컬분야 심의는 지원신청 총 79건 중 필수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행정 결격 처리된 사전연구 분야 1건, 중복 신청으로 인한 사전제작 분야 1건을 제외하고 사전연구 분야 20건, 사전제작 분야 5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심의 진행에 대한 주요 내용을 숙지하였고, 총 77건의 지원신청서를 사업 공고문에 고지된 분야별 심의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연구 유형의 심의기준은 활동목적의 타당성(30%), 활동계획의 충실성(40%), 활동계획의 기대효과(30%)이며, 사전제작 유형은 기획의 창의성(40%), 활동계획의 구체성(40%), 예산계획의 적정성(20%)입니다.

지원 작품의 결정은 심의위원 총점 고득점 순위로 논의하였으며 지역균형지원제도에 따라 비수도권 선정 비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 종합토론을 통해 사전연구 분야 7건, 사전제작 분야 10건을 지원 작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전연구 분야에서는 연구 의도와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활동 계획이 연구 방향에 따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사전제작 분야에서는 작품 소재가 참신하고 기획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과 활동 계획이 체계적이며 향후 일정과 참여 인력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사업을 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창작의과정 창작뮤지컬 분야 지원을 통해 공연 제작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여 향후 완성도 있는 작품 제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원예산의 한계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를 전합니다. 녹록지 않은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때로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뮤지컬 창작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든 라만차의 기사들에게 깊은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창작의과정 #공연예술_무용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창작의과정 #공연예술_무용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14:00~18:00
- 회의장소 : 서울 아트리움 호텔(종로) 컨퍼런스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신아, 김이경, 박정의, 박태희, 심정민, 이나현, 정현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의 과정’은 다양한 창작 활동을 폭넓게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장르별 지원사업 내에 사전 제작, 과정·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연 예술 분야 중 무용 장르는 사전연구(조사 및 리서치), 사전제작(포트폴리오/쇼케이스 및 포트폴리오)으로 구분하여 공모했습니다.

본 사업은 총 67건 신청 사업 중 필수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행정결격사업 2건을 제외한 총 65건의 신청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전수검토와 본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위원은 7명의 무용계와 그 주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전연구와 사전제작이라는 유형에 따라 사전연구 유형은 활동목적의 타당성(30%), 활동계획의 충실성(40%), 활동계획의 기대효과(30%), 사전제작 유형은 기획의 창의성(40%), 활동계획의 구체성(40%), 예산계획의 적정성(20%)에 초점을 맞춰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기획 의도 및 컨셉의 명확성, 콘텐츠의 합리성, 예산분배의 적절성, 실행 역량, 연계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세부 의견으로는, 각 유형별 지원 취지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경우라든가 지원신청서에 계획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에서 단체 경상비보다는 창작 리서치나 제작 준비를 위한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공적 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자원 다각화 및 수익모델 개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연구의 경우 정액지원으로 6건을 선정하였으며, 사전제작의 경우 포트폴리오, 쇼케이스 및 포트폴리오라는 두 유형에서 지원율을 반영하여 각각 2건과 8건을 선정했습니다. 사전제작은 지원상한액을 고수하기보다는 준비과정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무용가 및 무용단체에 지원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2023년도 창작의과정 사업에서는 타분야 대비 무용 분야의 지원신청 건수가 낮아 예산배정 비율 및 최종 선정 건수 역시 비교적 낮은 건수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한 무용 분야의 단계별 창작 체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활발한 지원신청과 사업

에 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창작의과정 공연예술 사업의 경우 유형을 구분하여 운영함에 따라, 공연예술창작산실의 단계별 제작 지원 과정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기틀을 다지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단계별 제작을 위한 고민과 준비가 충실히 이뤄지고, 창작 스태프들과의 공동 연구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성숙한 창작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심의회원 일동

■ 2023년도 창작의과정 #공연예술_음악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창작의과정 #공연예술_음악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14:00~18:00
- 회의장소 : 서울 아트리움 호텔(종로) 컨퍼런스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남국, 김대훈, 김주일, 안준하, 윤성원, 이복남, 전유진

우선 음악 장르의 구분 없이 여러 지역과 폭넓은 연령층이 본 사업에 지원신청해 주신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창작의과정’은 차별화된 공연예술 소재의 발굴과 리서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연구 단계, 또는 작품을 완성하기 전 사전제작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을 목표로 진행된 본 사업에 접수된 총 131건의 지원신청서 중 사전연구 유형은 30건, 포트폴리오와 쇼케이스로 나누어지는 사전제작 유형은 101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제작 유형 중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서는 행정결격 처리하였습니다.

심의기준으로는 사전연구 유형에 대해서는 활동목적의 타당성(30%), 활동계획의 충실성(40%), 활동계획의 기대효과(30%)를 기준으로, 사전제작 유형에 대해서는 기획의 창의성(40%), 활동계획의 구체성(40%), 예산계획의 적정성(20%)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저희 일곱 명으로 구성된 심의의원들은 130건의 지원신청서들을 온라인 심의로 개별 검토하고 각 심의대상에 의견을 제출한 후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개별 심의에서 이미 높은 점수에 오른 지원신청인(단체)은 지원결정대상으로 확정하는데 이견이 없었으며 심의의원 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지원신청서는 사업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정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와 소재에 대한 기획이 많았던 이번 지원신청서 중에는 재활용품으로 악기를 제작하여 이 시대에 당면한 환경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험정신을 비롯하여, 역사와 자연, 젠더 문제 등을 탐구한 시의성을 갖춘 프로젝트들이 돋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사회 이슈에 동참하여 대중과 호흡하기 위해 다채로운 소재로 창의성을 발휘하려는 음악인들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범주 안에 속한 독창적인 기획이라도 그 안에서 구체적인 실행능력을 갖춘 프로젝트만이 지원요건에 부합된다는 점이 지원사업의 숙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심의의원들은 다수의 지원신청인(단체)이 목표로 삼았던 ‘공감과 실험정신’에 주목하였고 그 중 충실히 활동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자유로운 토론 끝에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예술 분야에 치중도가 높아 음악분야에서의 지원이 타당하지 않은 프로젝트나 정형화된 음악 형식을 취하여 ‘소재의 발굴’이라는 사업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는 지원신청서는 아쉽게도 후순위에 두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별 지원신청액을 최대한 보전하여 지원하되, 일부 예산집행계획 상 현실성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완벽한 결과물을 요구하기보다, 창작 '과정' 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이 다른 사업과 차별화 됩니다.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음악인이라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음악인들이 이 '창작의과정' 사업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아쉽게도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해야 하는 음악인에게는 좀 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기획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선정된 음악인은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후회 없는 사업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창작의과정 #공연예술_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창작의과정 #공연예술_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2일(금) 14:00~18:00
- 회의장소 : 서울 아트리움 호텔(종로) 컨퍼런스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강상구, 권혜미, 김규형, 라예송, 박진, 장경진, 정선구

본 지원사업은 '전통예술분야'의 차별화된 소재 발굴, 기획 및 제작 준비 활동 지원을 통해 우수한 작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창작자 중심의 세분화된 작품제작 환경 조성을 통하여 기획역량 제고 및 안정적인 프리프로덕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창작의과정 #공연예술 전통예술분야 창작지원을 위한 체계는 크게 신작 '사전연구'와 '사전제작' 두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체계 구축과 중점 지원을 통하여 향후 작품 초연(올해의 신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올해의 전통예술분야 심의대상 건수는 총 104건 중 서류 미비로 인한 결격처리 1건을 제외하고 총 103건으로 세부적으로는 사전연구 17건, 사전제작 유형①(포트폴리오) 12건, 사전제작 유형②(쇼케이스+포트폴리오) 75건이 있었습니다. 전체 심의대상건수에 대하여 심의위원 전원은 사전 전수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사전 연구의 경우 조사와 리서치 기반에 대한 정액지원으로 '활동 목적의 타당성(30%)', '활동계획의 충실성(40%)', '활동계획의 기대효과(30%)'에 의거한 기획 의도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과 구체성, 예산 책정의 적정성, 창작활동과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제작 유형①은 포트폴리오 제작, 유형②는 쇼케이스와 포트폴리오 제작에 관한 지원으로 '기획의 창의성(40%)', '활동계획의 구체성(40%)', '예산계획의 적정성(20%)'에 의거한 기획의도와 목적의 창의성, 작품개발과 지원의 필요의 타당성, 향후 제작될 공연과의 연계성, 계획의 체계성과 구체성, 예산 책정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신청건의 활동계획에는 예술가 개인의 고민을 사회적 고민으로 확장시켜 전통예술콘텐츠로 풀어내려는 시도와 전통예술계 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콘텐츠를 수면위로 끌어올리고자한 예술가들의 참신함과 성실함이 담겨있었습니다. 전통예술과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을 시도하려 하거나, 사회문제 이를테면 환경 관련 이슈를 다루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렀거나, 본 사업보다는 타 지원사

업에 부합하는 성격의 활동, 전통예술원형의 단순재현 또는 차용 정도로 창작작품으로 보기 다소 어려운 활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유명 예술가의 모방 차원에 머물러 자신만의 고민이 부족한 활동,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책정에 있어 합리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활동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수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다수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예술가(단체)를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긴 시간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준의 중점은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충실함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예술분야 종사자 신작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전제작활동 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창의적이고 신선한 기획력이 제시됨과 동시에 지원신청서상 기재된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향후 발전가능성, 이에 관련한 예산집행 계획 역시 얼마나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전연구 7건(총 35백만원), 사전제작유형①(포트폴리오) 2건, 유형②(쇼케이스+포트폴리오) 10건(총 1억64백만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완성된 공연 작품으로서의 결과물이 아닌 '창작의 과정' 을 지원하고 있고, 선정된 사업을 완결체 또는 표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획력을 앞세운 잘 정돈된 기획서에서 멈추기보다는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젝트의 가능성 자체가 증진되었으면 합니다.

선정된 사업은 연구와 제작을 통해 우수한 작품으로의 발전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에 더 많은 전통예술분야 예술가들이 지원하기를, 그리고 해당 사업이 진정성 있는 콘텐츠 개발과 건강한 제작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심의위원 일동